



## 자마틴의 『우리들』에서 21세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읽다

황지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 노어학 박사 / 현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산하 Folkuniversitetet 선임 강사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의 2024년 CEO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믿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비율이 45%라고 한다. 기술 발전은 모든 산업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글로벌 기업은 사업 성장과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의 투자 수익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스웨덴 등 유럽에 기반을 둔 많은 글로벌 대기업은 금융, 회계, 인사, 고객 센터 운영,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단순 업무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도 점차 폴란드, 발트 3국 등 구공산권 국가로 이전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초 시작되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속화됐다. 이 과정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1) 자동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 2)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타업무 관련 인건비 삭감, 3)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업무 기능 이전과 동시에 프로세스 표준화·중앙관리, 4) 본국 노동자들이 이전 국가의 인력에 업무를 인계한 후 감축 또는 해고, 5) 기술 개발로 자동화가 완료되면 이전 국가의 인력 역시 감축 또는 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 구성원의 개성 존중과 권리 보호는 종종 뒷순위로 밀려난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은 악덕 자본가 소수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

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경제 논리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에 공리와 효율성, 생활에 대한 책임이라는 명분이 더해지면, 누구나 무의식적·의식적으로 크고 작은 악에 가담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 작가 예브게니 자마틴(1884~1937)의 소설 『우리들』은 경제 논리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이 지배적인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러시아 정교회 신부였던 아버지 슬하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종합공과대학을 졸업한 자마틴의 성장 배경과 이력은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브게니 자마틴 (출처: www.iz.ru)

『우리들』은 우주선 ‘인테그랄’을 설계한 주인공 D-503의 일기 형식으로 전개된다. 소설의 배경은 29~30세기 무렵, 인류가 마지막 혁명과 ‘대전쟁’을 겪은 뒤 설립된 단일국가이다.



이곳에서는 개성과 창의성이 철저히 억압된다. 단일국가 사람들은 획일화된 일상을 산다. 수학적 정확성을 보장하는 첨단 기술로 운영되는 단일국가는 효율성과 논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기상해서 같은 동작으로 밥을 먹고,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일터로 가서 투명한 건물에서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음악 감상을 하고, 안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아파트에서 취침한다. 이 사회는 화학 물질로 인공 음식을 만들어서 기아와 식생활 불공평이라는 과제를 오래전에 해결했다. 단일국가에서 절대권력자인 ‘은혜로운 자’와 ‘수호자 사무국’은 주민을 철저히 감시·통제하고, 개개인의 언행은 수학적 정확성을 보증하는 첨단기술의 도움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록·관리된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명명 행위는 인간에게 개성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주민들은 이름도 없이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만 식별되며, 머리는 삭발하고, 푸른색이 도는 회색 제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은 가슴에 이름 대신 수감 번호를 달고 삭발한 죄수들의 감옥 생활을 연상시킨다. 이런 감옥과 같은 사회에서 인간은 생각과 감정,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닌 개성이 몰살된 불특정 다수로서의 관리 대상, 즉 객체로서의 인간이다.

이 단일국가에서는 모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분홍 티켓’을 제시하고 다양한 파트너와 사랑을 나눌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야 한다. 특정 상대에게만 감정을 갖거나, 가족을 꾸리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다.

단일국가를 깊이 신뢰하던 주인공 D-503은 팜므 파탈 같은 I-330를 만나면서 혼란에 빠진다. I-330은 단일국가를 전복하려는 혁명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녀의 유혹에 이끌린 D-503은 마지막 혁명과 대전쟁 전 인류의 유물들이 보관된 ‘고대의 집’에 들어간다. 이 유물 중에는 러시아 민족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흉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는 바람과 구름조차 없는 단일국가를 둘러싼 ‘녹색 벽’을 넘어 금지된 경계를 넘어서고 단일국가 밖에 있는 원초적인 자연 세계와 원시인 같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D-503은 I-330에게 금지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녀의 혁명 계획을 돕기로 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질투에 휩싸인다.

결국 혁명 계획은 발각되고 만다. 절대권력자인 ‘은혜로운 자’는 단일국가 사람들의 뇌에서 상상력과 감정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단행한다. 그런데 ‘은혜로운 자’ 역시 결국 단일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할당된 역할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높고 평범한 인간일 뿐임이 밝혀진다.

자마틴의 『우리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이 초래한 반유토피아를 그린 공상과학 소설로 주로 알려져 있다. 엔지니어 출신 작가로서 자마틴의 과학기술 지식과 통찰력, 제3차, 제4차 산업혁명 이후 세상에 대한 상상력은 이 작품에서 빛을 발산한다.



영화 『우리들』의 한 장면 (출처: youtube.com/watch?v=tqYJ3ADJMz0&t=6s)

그러나 이 작품은 과학기술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철학적이거나 존재론적인 고민을 다루고 있다. 단일국가는 ‘우리’의 집단이익을 위한 전체주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첨단기술, 만장일치로 이룬 완벽한 질서와 균형, 이성과 합리주의, 감시와 통제, 엔트로피, 완결됨, 유한함을 상징한다. 반면 ‘녹색 벽’ 밖의 세상은 개인인 나의 존재, 원초적 본능, 인간과 자연, 자유와 다양함과 공존하는 혼돈, 자유의지, 에너지와 무한한 변화 가능성이 허용되는 세상이다. 주인공이 이 두 세상 사이를 가로막는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난다.

1921년에 완성된 『우리들』은 검열 결과 이성과 합리주의를 중시하는 소련 사회에 대한 ‘실패한 패러디’라는 비난을 받으며 출판이 금지됐다. 이후 1924년 뉴욕에서 영어본이 출판됐고, 몇 년 후 프라하에서 러시아어 원본이 출판됐다. 그



러나 돌이켜보면 소련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마틴이 『우리들』에서 그린 단일국가는 100년이 지난 현재 서구사회나 우리 사회와 더 닮았다. 우리 대부분은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비슷한 정장이나 작업복을 입고 비슷한 시간에 출근한다. ‘투명성’ 이면의 ‘통제와 감시’를 위해, 서로 무엇을 하는지 다 보이는 유리 벽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모든 사안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숫자의 논리, 공리주의, 합리주의, 프로세스 표준화가 의사결정의 원칙이 되고, 개성과 감정의 개입은 배제된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은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의 부분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과학기술은 본질상 가치 중립적이다. 기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인간의 다양한 필요를 만족시키고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녹색 벽’의 경계를 넘어선 D-503이 제기한 의문점들에 대한 성찰과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마틴의 『우리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RS**

